

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서 최대 규모 이민단속

이민단속국 요원 등 2천여명 파견
도심 차량 검문·호별 방문 조사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 “정치쇼” 반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계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네소타주(州)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 착수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직무대행은 보수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투입 인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2천명의 요원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플리스 일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작전에는 ICE 요원들과 함께 인신매매와 밀입국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관경보호국(CBP) 요원과 특수 전술부대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요원들은 도심 도로에서 차량을 검문하거나, 상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6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플리스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또한 불법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별 방문 조사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 늄 국토안보부 장관도 전술 조끼를 착용한 채 요원들의 체포 작전에 동행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지역에서 하루에 1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월즈 주지사는 “주 정부와 아무

련 협의 없이 대규모로 요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 당국은 지원금 부정 수급 논란이 처음 불거진 미네소타에서 지난해 말부터 불법체류자 체포를 확대해왔다.

/연합뉴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5천만배럴 美 인도”...석유이권 속도전

“판매대금, 베네수·美 국민 위해 사용”
석유사 만나 ‘석유 인프라 재건’ 논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 확보를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그로부터 사흘 사이에 매장량 기준 세계최대로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석유 관련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원유는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며,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이나의 통제하에 뛰어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내린 독자적 제재 조치로 인해 국제 시장에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제값’에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양국에 배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미국의 제재 속에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해온 중국에 갈 물량을 미국으로 돌림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와 대(對)중국 경제 효과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3천만~5천만 배럴은 베네수엘라의 평시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약 30~50일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미국은 하루 평균 약 1천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5천만 배럴 기준으로 시장가격은 최대 30억 달러(약 4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석유회사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며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장의 문제이고,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럽서 폭설로 최소 6명 사망...항공·열차편 대거 취소

유럽 곳곳에서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항공과 도로 교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고도 잇따라 유럽 전역에서 폭설과 도로 결빙 등 영향으로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BBC방송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남서부 랑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한 2건의 교통사고로 3명이 숨졌다.

폭설이 드문 곳에서도 많은 눈이 내려 택시가 연석을 들이받고 마른강으로 추락해 운전자 가 사망하는 등 2명이 숨졌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밤 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샤를 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에 다음 날 오전 항공편이

각각 40%, 25% 이상 결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7일 예정된 항공편 600편을 사전에 취소했다.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고속열차 유로스타도 취소되거나 연착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